

한국의 부패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Culture of Corruption

전 수 일(Jeon, Soo-Il)**

ABSTRACT

Traditionally Korean People have long been influenced by Confucianism since the Yi Dynasty and formed its unique familism. This study is to trace the culture elements of corruption from socio-cultural perspective and examine the formative background of corruption and its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defining the culture of corruption. Some fundamental reasons for inducing corrupt behavior are as follows;

1) Power supremacy, 2) Stress on personal tie, 3) Emotional humanism, 4) Strong ritualism, and 5) Discrepancy between social formal and informal norms. The distorted customary practices are prevailed in our way of life such as 1) Not drawing clear line between official and private matters, 2) Excessive reception expenses, 3) Undue marriage or funeral ceremonies, and 4) A way of thinking about 'Give a treat for me'.

We must overcome habitual customs which are supposed to corrupt ourselves in order to surviv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ey-Words : a culture of corruption, Confucianism, power supremacy, corrupt behavior customary practices, global standard.

* 이 연구는 2003년 교내 학술연구비에 의해서 이루어짐.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서론 : 문제의 제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부패문제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 거의 공통된 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은 부패의 정도가 심하여 어느 사회의 한 구석도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패가 만연된 나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역대 정권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제일의 과제로 내걸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어느 정권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했고 오히려 심화되는 경우를 목격하고 있다.

1995년도부터 해마다 각국의 부패인지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대체로 그 나라의 경제수준과 부패인지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갖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력 수준에 걸맞지 않게 청렴도가 훨씬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도 우리나라의 부패인지지수(CPI)는 4.5점으로 조사대상국 102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였고 2003년도는 오히려 4.3점으로 조사대상국 133개국 중 52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그 결과 심지어 우리나라를 일러 ‘총체적인 부패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이라고 자조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 속속들이 부패구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관행이 일반국민들의 의식과 가치에 영향을 주어 일종의 생활 패턴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 문제가 있다.

부패가 일종의 사회문화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은 청소년층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부패의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부패국민연대’에서 2002년 12월에 서울시내 10개 중·고교생 1,005명을 상대로 ‘청소년 부패, 반부패 의식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중·고교생의 91%인 910명이 우리나라를 ‘부패한 사회’로 보고 있다. 또 82%의 학생들은 ‘내가 어른이 되어도 한국 사회의 부패는 더 심해지거나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41%의 학생들은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고, 또 ‘너물을 써

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쓰겠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28%나 된다. 우리 사회에 부패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성인은 물론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조차도 이미 '부패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릇 한 나라의 부패문제는 그 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전수일, 1999: 35). 부패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 나라의 사회적 풍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부가 크게 좌우한다. 국민들 사이에 온당한 사고기준이 확립되어 사회질서를 존중하며 준법정신이 높고 공익을 앞세우는 기풍이 압도하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훨씬 부패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Lawrence W. Sherman, 1974: 15-30). 이와 같이 사회적 풍토는 부패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그 나라의 법적 제재의 정도와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주고 이들이 조직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 각각 부패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풍토병이라 일컬어지는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회적 풍토 내지 문화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상황적합적 연구가 시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백완기는 그의 저서 「한국의 행정문화」에서 “그 나라의 정치현상이나 행정현상은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명제로 삼고 있다(백완기, 1982: 1-15).

생각건대, 인간의 행위와 사고는 문화라는 거울을 통해서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화(patterned)된 행위 양식이 문화인데 크라크호온에 의하면 이는 단순한 사회관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화된 습관(socially valued habits)”이라는 것이다(Clyde Kluckhohn, 1962: 26-29).

국가사회의 전체문화는 다양한 하위체계 문화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관료들의 가치관, 태도 및 신념체계 등의 총체는 관료문화를 형성한다. 이 관료문화는 또한 그 나라의 시민문화와 별개로 독립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상호관계를 맺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내면적인 부패심리도 사회문화적 풍토의 특성에 따라 순화되어 누그러지기도 하고 촉발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부패문화의 형성배경과 유발요인을 추적,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부패문화의 특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 속에서 배태되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행태특성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갖고 있지만 부패문화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한 통제전략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돌리려한다. 이 연구를 위해 국·내외 각종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II. 부패문화의 개념정의와 형성배경

1. 부패문화의 개념정의

원래 문화는 가치 중립적 개념이 아니라 가치가 내포된 개념이다. 또한 문화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축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기본적인 핵심은 전통적인 관념과 거기에 부수된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체계는 한편으로는 행동의 산물로서, 또 한편으로는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Kluckhohn, 1962: 73).

부패문화(a culture of corruption)란 부패현상을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는 개념적인 분석이다. 문화란 인간의 삶의 가치(value)와 행태(behavior), 그리고 의식구조(mentality)의 집합적인 개념이다. 사실상 인간은 태생부터 문화적인 존재이다. 인간을 문화적인 존재로 파악하면 부패는 마치 우리 사회 구조의 불가피한 문화적인 가치가 되어 버린 구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김영중, 2003: 3).

여기서 문화결정론자인 화이트(Leslie A. White)의 인간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문화 없이(culture-less)' 태어난다. 즉, 모든 인간은 어떤 특정의 문화유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언어, 관습, 신앙, 태도, 도구 등의 문화적인 환경 및 기후, 지세, 동식물 자원 등의 자연환경 속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특정의 문화 전통에 노출되고 성장함에 따라 그

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요소들을 갖추게 된다. 인간은 이들 문화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흘러내리는 '문화과정'이라고 불리는 시냇물 속으로 태어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의 생활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문화라고 불리는 외부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이문웅, 1978).

문화는 연속적이며 축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정 사회에 있어서 특정 집단의 문화는 시간을 통하여 기존의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교호작용을 통해 어떤 것은 탈락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새로이 조합 또는 종합되는 이른바 문화과정(culture process)의 소산이 집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문화요소의 속성, 내용 및 전통의 차이에 따라 국민들의 가치관 및 행태면에 영향을 주어 그 나라의 특성을 형성한다.

대개 관료문화라 함은 관료들의 가치관, 태도 및 신념체계 등의 총체로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료문화도 다른 나라와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특징적 요소가 없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부패문화도 다른 나라와 상이한 특징적 요소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인간의 속성상 '부패심리'를 누구나 갖고 있다. 사람에게 이 기심의 발동은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부패심리가 누그러지거나 촉발되기도 하는 것이다. 부패문화란 공직자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부패사태에 대한 관념, 태도 및 가치관 등의 총체로 이루어진다.

2. 한국의 부패문화 형성배경

1) 유교문화의 전통

이조시대(1392년-1910년)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교 사상만큼 우리 국민생활은 물론 사고방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유교(儒敎)는 이조(李朝) 정치문화의 체제이며 가치관이고 동시에 이조와 현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치의 사상적 연원일 뿐만 아니라 행정행태의 중요한 인자이다. 유교는 곧 지식이요 도덕이며 경륜이라는 문화체계인 것이다(박문옥, 1981: 78).

생각전대, 이조시대에는 유교철학은 국가의 기본적인 교리요 정책이었다. 그것은 국민들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국가생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규범으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유교의 중심사상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유교에서 본 인간관은 사람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자로 보는 평등한 인간관이 아니고 종적관계에서 본 불평등한 차별적 인간관계이다. 그곳에는 개성이 뚜렷한 자아의 존재를 인정함이 없고 양반과 상놈의 인간관계요 남자와 여자의 신분적 계급관계요 연장자와 연소자의 엄한 상하지배의 관계요 아버지와 자식간의 복종관계이다. 인간을 어떤 상, 하, 지배, 피지배의 관계에다 두고 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생리였다. 다시 말해서 유교는 개인의 자유보다 권위를 앞세우는 사상이라 하겠다. 유교의 도덕은 결국 통치자를 위한 윤리요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굴복하는 것을 요구하는 정치도덕이요 권력자, 통치자, 상위자가 그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정치윤리라 할 수 있다(윤태림, 1977: 147-157).

따라서 이는 보편주의적인 윤리가 아니라 대인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윤리이다. 이리하여 가족, 친지 등 혈연관계와 향토 등의 지연관계를 중요시하여 인정, 의리, 감정 등이 앞서 합리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를 억제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결과 인간의 가치는 그가 지니고 있는 능력, 지혜, 인격 등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보다는 그가 얼마나 형식적인 예절을 갖추고 얼마나 겸손하고 웃어른을 알아보는 겸양의 덕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일쑤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君子)이다. 군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덕이다. 군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은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에 더 치중한다. 의식적, 의례적인 예의를 지키고 권위를 갖추고 행동을 진중히 하고 말을 적게 하고 보행이나 언행을 조심하고 모든 것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외면형식을 갖추는 것에 더 치중하였다. 이리하여 독서적인 교양을 높이는 것이 덕이지 영리적인 직업을 택하여 이를 천성으로 알고 복종하는 것은 군자가 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였다(윤태림, 1977: 149). 또한 그들은 신분관계를 중요시하는 만큼 신분과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 무관심한 것이 보통 있는 일이다. 유교는 부자, 군신, 부부 등 특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개인만을 생각할 뿐, 사회라든가 집단전체에 대한 공공적 도덕이라는 것을 그다지 생각지 않는다. 특히 부자, 부부, 형제자매 등 자기 집을 중

심으로 하는 생각에 골몰하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으로서 어떤 이득을 자기가 보고 자기 후손이 얼마만한 득을 보느냐가 문제이고 은신, 은둔한다는 것도 그것은 한 개인의 보신책(保身策)에 불과한 것이었다. 유교도덕은 비천자가 존귀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인간관계는 귀천존비(貴賤尊卑)의 관계에서 생각되고 이에 관한 질서가 인간관계의 질서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교도덕은 존귀자, 권력자의 지위와 권위를 옹호하는 것이고 그들의 욕구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충효, 즉 부(父)와 군(君)이 자(子)와 신(臣)에게 요구하는 것이다(윤태림, 1977: 151).

원래 유교에는 오래 전부터 두 가지 이질적인 부분이 모순없이 존재해 왔는데 그것은 곧 살신성인(殺身成人)의 희생정신과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자기영달을 구하는 행동이다. 통치자들은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국민들을 조종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그러면서 비굴하고 외면치레에 편중하는 행동 모랄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문화는 상하 위계 질서와 과거지향의 보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엄격한 사회계층제를 이룩하고 집권화된 권위주의사회를 정당화시키는 데 공헌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교철학은 대 직업관에 있어서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서열의식이 뚜렷하며 관직지상의 가치관 속에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을 조장하였다. 이리하여 관료가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관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식이 강렬하였다. 관료사회에 있어서 '벼슬'은 곧 부귀영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1) 개인적 치부의 유일한 기회가 되며, 2) 관료적인 낭비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가질 수 있고, 3) 부역노동과 징용과 납세의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박문옥, 1981: 101-102).

2) 한국 가족제도의 특성과 영향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활동분야에서 기초적 단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가족단위야말로 유교문화의 전통이 가장 강하게 침투되어 있는 사회의 조직 형태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은 서양에서 말하는 가족(family)의 개념과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김해동, 1978: 56).

첫째, 우리나라의 가족은 주로 혈연관계에 중점을 둔 집단이다. 따라서 그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서양사람들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광범하다.

둘째, 우리나라 가족 구성원의 가족의식은 서양사람들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강하고 광범하다.

셋째, 서양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경우처럼 종가(宗家), 큰집, 작은 집 등의 개념이 없거나 극히 약하다.

넷째, 우리나라 가족 구성원들의 독립적인 태도는 서양사람들의 그것에 비하면 훨씬 약하다

위에서 언급한 ‘가족의식’ 내지 ‘가(家) 의식’이란 ‘집 위주사상’을 의미한다. 사회의 단위로서의 집(家)은 단순히 건축물을 뜻하는 이외에 1) 현실의 가족 집단과, 2)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관념적인 가족집단과, 3) 동족집단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최재석, 1978: 43). 따라서 집이 개인에 우선하고 사회의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평가 단위를 개인에 두지 않고 집에 두고있는데 다음 말속에 잘 나타나 있다. ‘아무개’라 하지 않고 아무개 집 아무개 즉, 아무개 집 아들, 아무개 집 딸, 아무개 집 손자, 또는 양반집 자손 등으로 호칭한다. 또 결혼을 의미하는 말로 ‘시집간다’, ‘장가간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구성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이기 때문이다(최재석, 1978: 42-46). 따라서 한국인은 여러 집단의 인간관계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족집단의 인간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 집 안 식구처럼 지냅시다” “가족적인 분위기”, “한 집안식구 같으니 말이지” 등의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국가의 대통령을 국부(國父)로 의식하는 것도, 관청을 관가로 의식하는 것도 그 일례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역시 가부장(家父長)적 요소가 많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전제적인 행위도 은혜라고 의식하고 이 부모에 대한 자기의 부정적 복종을 ‘효’라고 관념하는 퍼스넬리티의 형성은 사회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자기에게 소위 은혜를 베푼 상위자에 대하여는 그가 어떠한 비합리적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의식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최재석, 1978: 49).

이는 바로 가족내의 인간관계의 사회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원래 가족은 혈연적 유대성을 본질적 개념으로도 잡고 있으나 이러한 가족적 인간관계가 가

족 외의 제1차적 집단(primary group)에 까지 확대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 사회관계, 가치체계를 충칭하여 가족주의(familism)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가족주의는 가족은 물론 출생지, 본적지, 씨족집단, 출신학교 등의 제1차적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말한다(백완기, 1978: 38).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에 대한 충성심은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나 이것이 확대되면 출신 지역이나 출신학교 등의 제1차적 집단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도감을 갖는 나머지 불법적인 행위도 눈감아 줄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역기능적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확대된 형태의 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공사(公私)의 활동에 있어서 기초적 행동단위가 되어 분파주의, 지역주의 및 귀속주의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전통적 가족주의에서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형성되었으니 가족관계야말로 긴밀한 결속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이상적인 인간관계로 보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3) 사회규범의 괴리 현상

대개 일반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사회규범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사회규범에는 공식적 사회규범과 비공식적 사회규범이 구분의 한계는 모호하나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어떤 학자는 구분하기를 규범 중에는 공식적으로 생활 표면에 내세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 표면에 내세우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편안한 자세로 또는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생활관행 같은 것이 있다. 사람의 의복생활에서 예를 들면 전자는 정복 또는 정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후자는 일상복 또는 평상복(casual wear)에 해당한다. 전자는 공식적, 형식적인 생활이고 후자는 비공식적인 사생활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사생활 영역에서 사생활을 규제한 규범을 비공식적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생활습관들이 그대로 규범화된 것이다(김해동, 1992: 46-47). 이러한 규범은 오랜 세월에 걸쳐 관행화되어 법규범화된 관습법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기업행위에도 그리고 행정행위에도 존재한다. 기업관행 또는 행정관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행 중에는 공식적인 사회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대체로 관행이라는 것이 생활상의 평의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반대로 공식규범 또는 공식생활이라는 것이 특히 신생국 국민들에게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따라서 피곤한 생활인 경우가 많다. 선물과 뇌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전통적인 생활에 익숙해 온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선물은 생활상의 자연스러운 관행에 해당하나 서양사람들의 시각 또는 판단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부패행위에 해당한다(James Scott, 1972: 10).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상호이익(reciprocity)에 대한 강한 관념을 갖고 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었으니 나도 그 보답으로 당신을 위해 어떤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식이다. 거래의 징표로서 소액의 금품을 전달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빚을 갚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인들은 팁(Bakshish) 혹은 소액의 뇌물을 사회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 생각하기도 한다(Ziauddin Sardar, 2001: 11-12).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기업관행이나 행정관행이 부패행위로 범망에 걸리게 되면 공직자나 기업인들 중에는 ‘억울하게 나만 걸렸다’ 든가 ‘재수 없이 나만 걸렸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그 말에는 모두들 또는 대부분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Ⅲ. 부패문화의 유발요인에 따른 행태 특성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전통과 그것의 영향을 받은 가족제도의 특성에서 독특한 의식과 태도 및 가치관이 형성되었으니 부패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추적해 볼 수 있다.

1. 권력지상주의

예로부터 권력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권력을 잡으면 명예는 물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했고 현실적으로 일반국민들에게도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실이다. 가능하다면 누구나 권력의 직위를 획득하려는 열망이 강렬하였다. 정치권력이나 관료제 하의 관료의 권한은 막강한 위력을 일반국민들 위에 행사되는 것이다. 권력지상(權力至上)의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감투지향의식은 권력의 상징인 관료가 되기를 원하는 양명의식(揚名意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리가 되어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지배계급이 될 수 있는 이조시대의 전통과 한국민중 위에 군림하여 한국민을 강압한 일인(日人)관료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로 말미암아 관료의 권위의식은 오늘날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권력지상주의는 ‘권력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갖게 한다’는 권력만능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로서 명예(98.6%)와 권력(95.7%)을 단연 앞세우고 있다(공보처, 1996: 33). 정경유착이나 관직 이권주의는 권력지상주의의 필연적 결과이다. 재벌기업들이 권력에 줄을 대지 않고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권력과 공생해서 막대한 이익을 획득하든지 권력에 잘못 보여 기업이 공중분해 당하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권력에 아부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하나이즘’ 현상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즉, 권력이 한사람으로 집중되고 수렴된다는 의미다(백완기, 1997: 8). 권력이 한 곳이나 한사람으로 집중되다 보니 독선성과 교조성을 띠고 절대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는 ‘윗사람’ 또는 ‘윗어른’하면 만능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옛말에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 붙듯한다’고 권력의 실세 주변에는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믿고 있다. 대통령에게 너무도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먼 친척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연결고리로서 효용성이 클 수밖에 없다.

감투란 벼슬을 뜻하고 ‘벼슬’은 「관청에 나가서 나라 일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리」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이희승, 1999: 1562). 물론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감투의 의미는 이것 외에 훨씬 더 넓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즉, 효의 한 요소이며 학교교육의 목적인 ‘입신출세(立身出世)’, 행복의 내용인 부귀영화의 ‘귀(貴)도, 금의환양(錦衣還鄕)의 ‘금의’도,

한 자리 차지해야 한다'의 '한 자리'도 모두 감투를 뜻함에는 다름이 없다.

어쨌든 한국인은 감투를 쓴 당사자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감투를 쓴 사람을 알고만 있어도 그들은 사회적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법률이나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신이나 자기 집단은 부당한 권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다. 감투를 쓴 사람도 역시 자기를 믿고 그와 같이 행한 행위를 옹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묵과하는 것이다. 감투 쓴 사람은 세도(勢道)를 부릴 수 있다. 세도란 자기에게 주어진 감투를 규정된 바에 따라 공적인 것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나 자기가 속해 있는 사적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 감투는 사바사바의 비합리주의와 통하게 되고 그의 이른바 직속부하도 한몫보는 특명의식도 낳게 한다. 특별히 좀 봐달라, 특별히 봐준다, 적당히 좀 봐달라 등의 '특별히', '적당히' 라는 표현은 감투를 쓴 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나타낸 함축성 있는 어휘들이다. 이와 같이 관료나 정치인이 되어야만 행세할 수 있고 관료나 높은 권력을 가진 자와 사적관계를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의 일 단면이다. 여기에 부정부패의 요인이 개재됨은 말할 것도 없다.

2. 연고관계 중시주의

한국인은 연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따지려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라는 관념과 「남」이라는 관념부터 우선 구분을 해두고 매사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연고관계를 우선시키는 태도는 혈연, 지연, 동창관계 등을 중시하고 연고관계가 없는 타 부류의 집단을 냉대, 혹은 적대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어떤 연고가 있으면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집합주의적 행태를 뜻하는데 일면, 분파주의적 속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배타적이고 특수적이며 귀속주의적 성격(ascriptive nature)을 띤다.

이러한 분파주의, 혹은 할거주의(sectionalism)현상은 관료조직 속에서 더욱 심한 것 같다. 같은 부처나 같은 부처 내에서도 같은 국 또는 과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들은 공동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들은 내집단(in-group)으로 보며 자기를 그 내집단에 동일화하고, 자기가 속하는 집단 바깥의 사람들을 외집단(out-group)으로 보고 이들과는 경쟁 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로 간주하고 반목, 대립하는 현상을 보인다(김해동, 1978: 58).

이와 같이 혈연 이외에도 다른 연고에 의해서 친밀관계를 형성한 그들은 관료조직 내에서 사실상 <헤게모니>를 쟁취하고 인사문제라든가 기타 중요한 이권관계에서 일치 단결하여 그들의 권익을 옹호한다. 물론 여기에도 연고의 내용과 농도에 따라 친소의식(親疎意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것은 또한 이해관계가 얹힌 문제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준다. 서구사회의 합리적 관료제는 물인정적(impersonal)이고 불편부당(impartial)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사회화과정을 밟은 한국의 공직자들은 일반적인 규범보다는 특수한 연고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쉽다. 따라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란 어렵게 되고 분파적인 차등대우와 변칙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등 지연, 학연으로 맺어진 연고관계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거에서 투표행위도 연고관계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 사회의 지역할거주의는 원천적으로 우리의 연고주의 문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단지 정치인들은 이것을 부추기고 이용할 뿐이다(백완기, 1997: 10). 이러한 인간관계에서는 상호간에 이익(금전 또는 명예)이 되는 경우 비합법적인 행동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후원자와 고객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로 된다(James Scott, 1972).

그러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얼마나 훌륭하고 유력한 연고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처세를 가늠해 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인 개개인은 독불장군(獨不將軍)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힘으로 자립하는 일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연고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고 처세에서 실패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거나 가치관을 자주적인 입장에서 발전시킬 기회가 드물 수밖에 없다. 또한 제1차적 집단에 대한 충성심은 의리의식(義理意識)의 발로이다. 의리를 숭상하는 정신은 유교문화의 전통을 갖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다. 원래 의리는 유교의 오륜(五倫)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신(君臣)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대인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으로 되어 있다. 의리라는 개념은 타인의 친절 또는 호의나 연고적 가족관계에 대한 보답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수치, 명예, 체면 및 동정심을 뜻한다. 관료사회에서는 청탁

과 관계된다. 친구로부터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의리에 입각해서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의리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다. 의리의식은 보은의식(報恩意識)과 결부되고 잘 아는 사람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의무의식, 강자로부터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의협의식, 불의는 응징되어야 한다는 정의,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의감(信義感) 등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개념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보은의식과 잘 아는 사람은 남과는 달리 도와야 된다는 의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해동, 1978: 64-65).

3. 정의적(情誼的) 인간관계 중시주의

위에서 언급한 연고관계를 중시하는 성향도 결국 한국인의 정의적 인간주의(emotional humanism)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인간주의 역시 한국의 가족제도에서 유래된 것임에 틀림없으나 혈연집단,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의 제 1차적 집단에 한정되는 가족주의보다 경계를 확대하는 속성을 지닌다(백완기, 1982: 38).

정의적 인간주의는 가족주의에서 보는 귀속적 기준의 경계를 넘어서 단순히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적절하고도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질서는 이성에 의해서 보다는 따뜻한 인정에 의해서 주로 유지되는 것이다. 정의적 인간주의나 가족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책결정이나 행정행위에 있어서 정적(情的) 요소가 합리적 요소를 압도하고 만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 비인간적인 행위로 낙인찍히기가 십상이다. 대개 인정이 많고 자상한 성품을 지닌 공직자는 일을 이성적 합리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 직관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정의적 인간관계는 인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데가 하면 또한 상호간에 안전감을 느끼게 한다. 공직자와 시민의 관계에서도 공직자는 평소 그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준 시민인 고객에게 무언가 유리한 대우를 해줌으로서 보답하려고 한다. 다소 무리한 청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가능한 한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도 단순히 '주고받기'(give and take)차원을 넘는 정적유대의 소산

이다. 뿐만 아니라 상관과 부하의 관계도 정적 관계로 밀착되어 있어야 서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부하는 그의 상관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어느 정도로 잘 하고 있느냐 여부가 승진, 전보 및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주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유력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한 비록 당장에 상관의 특별배려가 없더라도 심리적 불안감에서 구제될 수 있다. 여기서 정적인 유대관계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등한 인간관계에서 상호존중과 예의를 지켜 나갈 것이 요구된다. 원만한 대인관계는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적인 유대가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는 정실주의에 입각한 파벌적 집단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 사회구성원간에 분열과 갈등을 빚게 하여 상호불신을 조장한다. 오늘날 정적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기안전을 위한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 이처럼 정적유대의 존속은 현재와 미래에 공하는 이해타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정적 유대관계는 영속성을 보이거나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그 농도에 심한 차이가 있다. 어떤 학자는 정(情)의 근원을 ‘품앗이’로 보고 이것의 특징은 주는 행위, 받는 행위, 그리고 갚는 행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품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호의, 은혜, 자비 등의 형태를 취하며 물질적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주희, 1992: 85). 또 정의 구성요소로서 상호내포성(inclusion), 밀착성(intimacy), 신의성(fidelity) 및 전체적 결합성(total involvement)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백완기, 1997: 3-6). 정이 많은 사람들은 생산이나 창조보다 분배와 유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주고받는 선물문화가 발달한다.

정의관계가 아닌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사람은 야박하고 냉혈적인 인간으로 취급받는다. 이처럼 이해관계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야박한 이해관계는 질서로 승화될 수 있지만 정의관계는 질서로 승화되기가 어렵다. 정은 그 자체가 맹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측성을 결하고 있다(백완기, 1994: 97). 따라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처럼 정(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안하고 변하기 쉬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증오로 돌변하여 극단적인 반발행위와 불신의 소지를 만들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정은 끼리끼리의 끈끈한 정이라고 할 수 있다. 끼리끼리의 정은 폐쇄성과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도와주고 보살펴 준다는 이야기다. 끼리끼리는 결속과 유대를 다지지만 바로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분파성과 분열성을 지닌다.

4. 강한 의식주의적 성향

의식주의(儀式主義)란 형식, 절차, 선례 및 전통적인 관습에 집착하려는 성향을 말한다(백완기, 1983: 83-99). 이는 유교문화의 특징의 하나인 예(禮)에 대한 숭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한국인의 생활에서 특히 상하의 신분 관계를 중심으로 극도로 발달하였다. 의식주의는 규격화된 형식과 절차에 강하게 집착하려는 형식주의와 결부되고 상하의 신분관계에서 권위와 위신을 처리할 때 지나치게 형식화된 법적 절차에 얽매인 나머지 목표의 전도(displacement of goal)현상을 빚어 진정한 목표성취를 저해하는 결과로 된다. 유교의 사고와 행동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여기서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은 법적 절차에 철저하게 얽매인다고 하는 점이다. 법적 절차에 치중하는 행정은 그야말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한편으로 판단해 보면, 입법의 취지는 엄두에 두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에 집착하다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을 내릴 수 있어 법 집행자에게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보편주의나 합리주의 정신이 박약하고 특수주의나 귀속주의(ascriptism)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직자들은 제약 없이 법을 깨뜨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편리할 때에는 언제나 법을 무시하고 변칙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 하에서는 공직자들은 소정의 기준에만 맞추려고 할 뿐 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들은 우선 형식적인 기준에 도달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의식주의는 행정의 소극성, 형식성,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적 문화이다(백완기, 1997: 14).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한다. 되도록 거추장스런 과정을 밟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여기서 불로소득의 생각이 만연하고 벼락출세주의와 한탕주의가 횡행한다. 한탕주의는 축재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테타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한탕주의요, 빨리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한탕주의다. 정당한 방법과 절차가 무시되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만연하기 마련이다. 모든 선거에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당선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이다. 목적만 성취하면 되었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정부패가 사회 전체에 만연되면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도 부패불감증에 걸려 자신의 부정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곳에 원인을 돌리려 한다. 어떤 학자는 부패문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금권만능주의, ② 정당절차 무시주의, ③ 법치, 준법정신의 마비, ④ 정실주의, 가족주의, 집단이기주의, ⑤ 폭력주의, ⑥ 비민주주의, ⑦ 공권의 사권화 현상, ⑧ 한탕, 찰나주의, ⑨ 근면기피주의, ⑩ 애국심, 이타심의 결여, ⑪ 부정적 문화 등이다(차용석, 1992: 8).

5. ‘한턱 내라’는 사고방식

예로부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남이 잘되면 시기가 나고 부화가 난다는 이야기다. 자신이 어떤 행운을 차지하면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게 된다. 자신의 행운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고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반면에 시기와 질투로 입방아를 찧어대는 경우가 많다. 이래저래 자신의 행운을 유지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턱을 톡톡히 내야 못 사람의 눈총에서 다소나마 해방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 막대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로 인한 보상심리도 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컨대,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

이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 민원인이 누리는 혜택을 생각하면 자신의 처지는 일만 처리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서글퍼지고 울화가 치밀칠 수가 있을 법도 하다. 따라서 급부(給付)와 반대급부의 보상(補償)심리 내지 보전(補填)심리가 발동할 수 있다. 나로 인해 당신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 만큼 나에게 노고를 위로하고 보답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원만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후로는 상종을 거부함으로써 관계는 단절되게 된다. 따라서 거래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후원자의 관계로 될 수밖에 없다.

‘한턱 내는 일’은 어떤 일이 성사가 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나 가까운 미래에 성사가 될 것으로 전제하고 사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이러한 행사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원만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불해야 할 부담으로 여기고 있고 이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IV. 결론 : 생활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우리는 위에서 한국의 부패문화의 형성배경과 유발요인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각기 특유한 사회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패문화의 특성에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개념도 나라에 따라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부패문화의 개념 규정 역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부패문화는 부정적이고 극복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바는 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부패문화는 단시일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적 전통과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배태되고 관행화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부패 관행은 문화적으로 오랜 세월

에 걸쳐 고착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나가는데도 또한 장구한 세월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일상적인 관행과 법적 제재간에는 다소 간격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과 뇌물의 구분이 애매 모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소액의 금품은 뇌물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애매하기 그지없다. 금액의 한도를 어디까지 잡아야 선물의 수준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역시 애매하다. 사회통념상 그 한계를 규정하려고 하나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다. 5만원 이하의 선물, 3만원 이하의 접대 등 법적으로 한도를 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법적 제재 측면에서 실효성 효과를 거두기란 상당히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규범도 공식적 규범과 비공식적 규범이 나뉘어지는데 그들간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공식적 규범은 사생활상의 편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관습화된 규범이다. 이러한 관행 중에는 공식적인 사회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관행에 익숙 되어 온 사람들은 공식규범은 딱딱하고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식규범을 어겼을 때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더해 준다. 대체로 법규범이나 제도들은 선진국의 것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것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the era of globalization)에 살고 있다. 세계화는 개방과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국경이 없는 사회',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의 기준'에 맞추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화의 압력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공직자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의식과 행태 면에서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다. 개인이나 국가도 세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투명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발붙일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도 없다. 부패심리 등 부조리 제거를 위한 생활문화 개선운동이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공과 사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점, 왜곡된 혼례, 상례문화, 무분별한 회식문화 그리고 기업의 회계 부정 등 시정되어야 할 부문이 비일비재하다(격월간 감사, 1997: 42-47). 생활문화 개선의 본질은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일이나 언제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 교육이나 의식개혁 운동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 보다 구체적인 공직자 윤리기준의 법제화를 통한 과감한 제도개혁은 공직자는 물론 국민의 의식개혁을 앞당길 수 있고 변질된 생활문화를 바로잡는데 필수적인 처방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 김주희. (1992).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서울: 집문당
 박문옥. (1981). 『신한국정부론』 서울: 신천사
 백완기. (1982).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 출판부
 _____. (1984). 『민주주의 문화론』 서울: 나남
 안병만. (2002). 『제4판 한국정부론』 서울: 다산출판사
 윤태림. (1977). 『한국인의 성격』 서울: 현대교육총서
 전수일. (1999). 『수정판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최재석. (1978).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연구 논문

- 김영중. (2003). “부패문화의 치유: 삶의 질의 향상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8권 1호
 김해동. (1992). “부패의 발생 조건” 『철학과 현실』 제15권
 _____. (1978). “한국관료행태의 전통문화적 제요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16권 제1호
 백완기. (1997). “정치문화와 부패” 『한국부패학회보』 창간호

- 이문웅. (1978). “인간주의 사회학에 대한 반론: 문화결정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상과 인식』 제2권 제2호 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 전수일 (1999). “공무원의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에 관한 연구: 선물, 접대 및 이 익수수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4호
- 차용석. (1992). “부정·부패문화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 제6호
- 2002년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 2003년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 2003년 「반부패국민연대」 조사통계 자료
- 1997년 5월 격월간 「감사」 통권 제53호
- 1999년 이회승 편저 「국어 대사전」 제3판 수정판 서울: 민중서관
- 199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대한민국 공보처

Books

- Scott, James. (1972).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New Jersey: Prentice-Hall.)
- Sherman, Lawrence W.(ed). (1974). Police Corruption: A soci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Doubleday)
- Williams, Robert. (2000). 『The Politics of Corruption』 Series.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Northampton, MA, USA)

Articles

- Ziauddin Sardar. (2001). "Among Asians bakshish is just another word." 『New Statesman』 vol. 130. (London, England)

저자: 저자 전수일은 부산출신으로 서울법대와 고려대에서 관료부패를 연구한 학자로 광운대학교의 주요보직을 맡으셨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제2대 한국부패학회 회장으로 역임 하시면서 학회발전의 초석을 다지셨으며 부패관련 연구논문으로 100여편을 남겼다.